

# 익산시, 新산업 관광시대 선도

### 홀로그램 · 보석 · 농업 6차산업화... 사전 예약제 분산 전시로 관광 '안전' 강화

익산시가 산업과 문화, 관광을 접목한 축제들이 잇단 성공을 거두며 新산업관광 르네상스시대를 열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9까지 9일간 열린 '익산문화관광축제가',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제1회 보물찾기 갑작 축제'가 익산 대표 산업을 알리고 적정 관람객 관리 등 안정적 운영을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들은 홀로그램산업과 관광 자원인 교도소와 축제문화를 결합하고, 보석산업과 2개러 다이아몬드 '보

물찾기'를 통해 보석문화관광을 선보이며 새로운 관광산업 패러다임을 선도했다.

농업 6차 산업화 및 도·농 상생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대표 축제로 자리잡으며 원조 산업관광축제의 성공을 보여줬다.

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축제 기간에 관람객 집중화를 예상해 '축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고 '분산 전시'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에도 기간에 맞춰 30일부터 축제 전 취소하는 등 안전에 대응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통적 관광에서 벗어나 '보석도시, 실감콘텐츠, 농식품 등 익산만의 자원을 다양하게 결합한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여 대한민국 新관광번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축제에 '사전예약제', '분산 전시' 등을 통해 방문객 수의 단순 증가보다 적정 인원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문화 '안전' 기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는 지난달 29일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주관으로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일원에서 2022 자원봉사 한마음 재능나눔 박람회 가 호수 속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 “자원봉사로 가득한 군산”

### 군산시, 2022 자원봉사 한마음 재능나눔 박람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달 29일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주관으로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일원에서 2022 자원봉사 한마음 재능나눔 박람회가 호수 속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및 단체 유관기관, 대학교, 일반시민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톨루랄라 장구놀이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2개 재능나눔 홍보·체험프로그램 부스와 문화공연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운영됐다.

또한 건강, 기술, 예술, 교육, 복지, 상담 환경 등 분야별로 구성된 재능나눔 체험부스는 재미있는 체험활동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등을 제공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무대에서는 군산대학교 ABL 댄스팀을 비롯해 노래, 댄스 무용 등 멋진 공연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방문객들의 흥을 돋우며 즐거운 박람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어르신들은 군산의료원의 골밀도검사, 동군산병원의 혈압/혈당체크와 웰다잉실버교육문화연구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녀를 데리고 온 가족 단위 참여 시민들은 호원대 응급구조학과와 CPR 체험을 비롯해 핸드드립 체험, 북아트 플랜테리어, 타로 멘토링, 쇼콜라티에 체험 부스 등을 찾아 시간을 보냈다.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코로나이후 4년 만에 개최된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리며, 금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재능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자원봉사로 가득한 군산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기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각자의 재능으로 박람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여행업협회와 '안전한 관광상품' 개발

### 익산시, 회장단 10인 초청 관광자원 결합상품 개발 등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

익산시가 한국여행업 협회(KATA)와 관광 안전관리 정책과 독자적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

시는 2023년 익산방문의 해'공동마케팅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한국여행업 협회(KATA) 회장단 10인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인전 관광 및 상품 개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차를 위해 보석박물관, 아가페정원, 교도소세트장 등 지역 관광 자원들을 둘러보고 익산만의 특색있는 자원을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했다.

또한 익산시 관광 발전을 포함한 관광상품 안전기준, 축제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시는 이를 통해 '익산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과 안전하고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안전한 축제, 관광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는 자리였다"며 "내년 이어지는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관광객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세대의 감성까지 어우를 수 있는 관광도시 익산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팸투어가 우리시 관광 안전 기준 마련에 큰 보탬이 되는 한편 국내·외 여행업 관계자들에게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내년 이어지는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관광객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기자

## 2022년 군산시 사회적경제한마당 '스며들다' 성료

군산시는 지난달 29일 군산 근대건축관(구.조선은행) 뒤 백년광장에서 사회적경제 관계자·군산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군산시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가치확산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소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스며들다'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이 직접 만



특히, 기념식 후 진행된 <사회적경제-예술에 스며들다>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군산지역 내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사회적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연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2022년 군산시 사회적경제한마당은 불거리, 줄길거리가 다채롭게 열리는 뜻깊은 문화축제가 됐다.

한유자 일지리정책과장은 "이번 군산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탐방투어 실시

군산시는 1일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함께하는 군산시 탐방투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군산근대건축관을 시작으로 군산대, 호원대 등 관내 3개 대학 250여명의 학생이 오는 8일까지 6회에 걸쳐 군산근대역사문화지구와 발행이 마을 등을 해설사와 동행해 탐방하게 된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군산시 탐방투어'는 지역 내 대학생의 약 80%가 타 지역 출신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에게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주어 향후 군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했다.

현장 투어뿐만 아니라 시의 시정방



향 및 군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등을 소개하고 투어 후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이 체감하는 청년정책 등에 대해 제안을 받아 인구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설문조사에 응한 참가자들에게는 군산시화인 동백꽃과 관련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군산=김판곤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시정소식지 새 명칭 공모

익산시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월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의 새로운 이름을 찾는다.

시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기존 소식지명인 '꿈과 희망의 익산이야기'를 대체할 새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특색이 담긴 참신한 소식지명을 선정하고, 더불어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1인당 1개의 명칭만 제안할 수 있다. 명칭의 형태는 8자 이내로 한글 영문 한자, 기호 혼용이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제안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군산시는 1일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이 누적 증가해 오는 11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분서 자료를 활용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상승·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부과액 3,073억8,800만원부과액 중 2,966억1,600만원을 징수해 9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4억5,300만원이며 세외 징수목표액은 6억이다.

이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 전국 확산조치를 통한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 체납주소지 및 거소지를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다.

/\*군산=김판곤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